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8.1.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밑 빠진 독’ 광물자원공사법 재추진... 정권에
독 될까 독 될까”(1.18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·여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
- ☐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광물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 방침이다.
 -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듬어서 다시 내겠
 - 여당 관계자는 “의원입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하는게 상징적 측면에서도 광물공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”고 말했다.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결정한바 없음.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 장 (044-203-5150)
박이용 사무관 (044-203-5158)